

문화시대의 신앙과 문학

추 태 화*

논문초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는 다양한 문화와 요구로 점철된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이다. 사회의 어떤 분야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전제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 점에 있어서 기독교계도 예외는 아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일방향 사회가 지나고 쌍방향 사회가 되었고, 이에 따라 전달도구도 이성과 감성, 그리고 영성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학(Literature)이 이러한 시대에 새로운 미디어로 등장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문학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면 커뮤니케이션에서 많은 장점을 얻게 된다. 이는 교회와 목회, 신앙인들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 된다. EQ, LQ, MQ 등이 강조되는 시대에 문학을 잘 활용하여 교회, 교역자, 교인들 간에 열린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되도록 한다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핵심주제어: 문화시대의 접촉점: 신앙과 문학, 문학과 신학의 만남,
성경과 문학, 문학 속의 신학, 설교와 문학, 교육과 문학

* 이 논문은 2005년도 안양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을 밝힌다.
안양대학교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문화시대의 접촉점: 신앙과 문학
- III. 전망

I. 들어가는 말

1. 연구 전제조건

세 번째 밀리니엄에 들어와 문화라는 용어가 단연 관심을 끌었다. 사회는 세계화라는 변동 요인으로 여러 부문에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에 대안을 제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개념이 문화였다.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 가던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 생성된 가치관, 관념, 용어 등이 사회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사회로부터 교회로 영향력이 유입되어가는 시대에 들어와서는 양상이 달라졌다. 이제 교회가 전하는 복음과 신앙은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메시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달하는 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울리는 뿔과리가 될 수 있다.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강조한 맥루한(M. McLuhan)을 인용하자면 교회는 복음의 전파매체로 시대에 걸 맞는 미디어(도구)를 발견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미디어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교회가 몸담고 있는 상황이 문화시대라고 한다면 문화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가 입어야 할 문화의 옷 가운데 하나는 문학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학은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즉 인격체가 존재하는 기본 양식으로서의 문학을 뜻한다. 인지와 표현을 통해 상호 교류하는 존재의 소통방식으로서의 문학이란 의미다.

신앙이 문학과 관계한다는 이론을 내세우는 것은 교회와 사회가 더욱 밀접

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만나는 방법을 확대한다는 의미이다. 문화시대를 위한 신앙의 도구로 문학을 선택한 것은 문학이 다른 분야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문학이 인간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활용되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방식이기 때문이다.

미래 사회는 가시적인 것을 몸으로 맛보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상의 시대, 이미지의 시대, 감각의 시대는 점점 가속화 되리라 본다. 사람들은 디지털 문화로 인하여 극단적으로 개인주의화 되지만 반면 공동체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온라인으로 형성되는 동호회, 클럽 등과 같은 디지털 공동체, 이-커뮤니티(e-Community)는 날이 갈수록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²⁾

이에 따라 교회 안팎의 커뮤니케이션에도 상당한 변화가 뒤따르고 있다. 기독교인들도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이성과 감성 사이라는 말은 아이러니한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신앙에서 이성과 감성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때로는 이성이 주류를 이루기도 하고³⁾ 때로는 감성이 주류를 차지하기도 한다. 이는 구원체험, 중생체험, 성령체험 등과 연관 지어 자칫 잘못된 신앙으로 타락할 우려도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들은 이성보다는 감성을

2) 우리 시대가 보이고 있는 여러 현상들로 인하여 다양한 용어들이 생겨났다. 다음에 소개되는 개념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불확정의 시대(Galbraith), 제3의 불결(A. Toffler),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해체주의, 디지털 시대, 부조리의 시대, 유목민의 시대, 악마의 세기(J. Attali), 패러다임의 변화(T. V. Kuhn), 21세기의 쇼크, 현대의 야만성, 미래의 원시시대, 현대가 맞는 새로운 중세시대(U. Ecco), 세계화, 무국적 시대, 국가/국경 없는 시대, 영상 시대, 감각의 시대, 가상공간, 버추얼 리얼리티(Virtual Reality)의 시대, 속도의 시대, 접속의 시대(J. Riffkin) 등등.

3) 예를 들면, 현대 기독교인들, 특히 도시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논리 위주의 교리에 치중하게 된다. 믿음을 이성적 인식과 결단이 추가 되는 행위라고 여기므로, 내적으로 메마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영성(spirituality)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내세우고, 말씀보다는 체험을 내세우는 이른바 왜곡된 영성주의자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서 상기해야할 점은 디지털 시대에 이성과 감성으로 균형잡힌 커뮤니케이션이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는 그 속성 상 아날로그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는 것이다.

2. 연구의 의의

현대 교육학은 그동안 실행되어온 아이큐(IQ) 위주의 교육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학생을 지능지수로 줄을 세운 결과 학생 개개인의 인격, 재능, 가능성 등을 중시하지 않고, 시험 점수에 치중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큐(EQ)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이를 응용한 이큐(EQ) 교육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큐(EQ)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며, 이를 교육에 접목하려는 경향도 생겨났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동안 교육 분야에 있어서 학습자들을 학습 내용을 외우고, 문제해결하고, 시험점수를 통해 평가했는데, 앞으로는 전인적인 입장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인간화되어 가는 교육에서 인간화로 방향을 선회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기독교계에서도 이큐(EQ)와 목회를 연결한 “이큐(EQ)목회”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시대의 흐름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이큐(IQ) 목회에서 이큐(EQ)목회로의 전환”이라는 용어도 탄생하게 되었다.(옥한흠 외, 1998). 이는 목회스타일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다. 교육계의 경우를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목회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 교인의 처지를 학생의 입장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사적으로 21세기는 평신도의 시대가 될 것이다. 지역교회의 사역 면에서 소그룹, 은사재배치 등이 그렇고, 선교사역에서도 평신도의 전문화, 예를

들면 의사, 간호사, 전기, 건설, 교육 등등 문화 장르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목회(Cultural Ministry)라는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문화와 함께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교회에서부터 훈련하도록 목회현장, 나아가서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문화목회의 목표는 삶의 각 현장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수 있는 온전한 평신도를 육성하는 것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교회도 변한다. 앤더슨(R. Anderson)은 현대교회를 향해 “변화에 민감 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교회가 변화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가? 바로 여기에서 교회는 문화라는 접촉점을 찾아야 한다. 문화목회라는 용어는 교회가 문화를 다시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목회는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개념이다.(추태화, 2004: 150ff).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소명과 지혜,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여기에 문학의 역할을 심분 활성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연구 방법론

문학이 신학과 만나고, 신앙과 만나야 하는 명제는 “문학은 인간학(Anthropology)이다”라는 데에 있다. 문학은 인간을 그리고 있다. 작가도 독자도 모두 인간이다. 작품 속에 주인공도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이다. 자신이 존재하는 시대의 역사를 살아가고, 가치관과 관습의 영향을 받으며, 동시대인들과 호흡을 맞추며 살아가는 인간이다. 따라서 문학은 인간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루이스(C. S. Lewis)는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은 자신의 방에서 나와 타인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고 말한다. 이것을 문학에다 적용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은 자기 자신만이 거하는 이기적인 방에서

나와 타인의 방으로, 이웃의 방으로, 인간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문학이 주는 장점과 문학을 활용할 수 있는 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갤러거(S. Gallergher)와 런딘(R. Rundin)은 『신앙의 눈으로 본 문학』에서 “독서와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해 이렇게 조언한다. 다음 세 가지 명제는 기독교인들이 문학의 세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돕는다 (Gallergher & Lundin, 1997: 69ff).

- 1) 하나님의 세계를 개발하라 (Developing God's World)
- 2) 하나님의 세계를 즐기라 (Enjoying God's World)
- 3)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 (Loving Your Neighbors)

이 문제를 고민한 비이스(G. Veith)는 『그리스도인에게 문학의 역할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책을 읽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성과 개인적인 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언어적 계서를 중심으로 하는 ‘책의 사람들’이다. 문화가 인쇄된 말로부터 점점 멀어져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책을 읽어야 한다...”

지금 반달족은 대중문화의 반지성주의와 고급문화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허무주의의 형태로 돌아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스도인들이 최후의 독자될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하다.”(Veith, 1994: 410-411).

은혜라는 말은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의 현존과 관계 지어 쓴다. 은혜는 일반 은혜와 특별은혜로 구분하는데, 특별은혜는 인간의 죄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속죄사역과 관계된 영역을 지칭한다. 특별은혜의 범위에서 은혜의 수단이라는 개념은 성례와 성찬,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류로 하여금 구원을 깨닫게 하는 성경 말씀을 가리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학은

특별은혜와 무관하다.

기독교인들이 문학을 통해 세계를 확장해 나간다는 사실은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축복의 방편이 되는 것이다. 벌코프(L. Berkhof)는 자신의 신학저술에서 이 사상을 피력하고 있다.⁴⁾

4. 연구 범위

위와 같은 논리의 근거를 따라 다음 다섯 가지 기본적인 쟁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1. 문학과 신학의 만남
2. 성경과 문학
3. 문학 속의 신학
4. 설교와 문학
5. 기독교 교육과 문학

II. 문화시대의 접촉점: 신앙과 문학

1. 문학과 신학의 만남

카이퍼(R. Kuiper, 1837-1920)는 현대 네덜란드 개혁주의를 새롭게 일으킨 인물이다. 그는 신학자이자 정치인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삶과 사회에 적용하려고 부단히 애썼던 목사였다. 흥미로운 일은 그가 학창시절에 문학의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점이다. “레드클리프의 상속인”(The Heir of Redclyffe)이라는 소설이 그에게 교회론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준 것이다. 이 작품을 만난 뒤 그에게 교회는 ‘어머니로서의 교회’

4) 2장 벌코프 항목 참조.

(Mother Church)로 그려지게 되었다(Berg, 1991: 38).

문학의 유용성에 대한 신학자 벌코프의 표현은 좀 더 직설적이며 논증적이다. 그는 조직신학 분야의 고전이 되어있는 『기독교신학개론』(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른 방법으로도 인간에게 전달될 수 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또는 대화나 문학을 수단으로 하여 소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성례는 교회에서 합법적인 교직자에 의해서만 집행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신자들에게 의하여 세계에 전달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역사되는 것이다.”(Berkhof, 1998: 285).

여기서 문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신자들에게 의하여...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라는 방법을 통하여 전파되기도 하지만, 문서선교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문학작품으로도 얼마든지 형상화하여 전파될 수 있다. 이를 증거 하는 대표적인 예가 기독교문학의 전형인 존 번연의 『천로역정』이라고 본다. 천로역정은 신앙인의 삶을 구원의 과정으로 풀어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을 대하는 독자들은 작품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기독교 구원론의 한 과정을 거쳐 가는 여정의 체험을 만나게 된다.

『기도』라는 제목의 저서로 알려진 포스터(R. Foster)가 『신앙고전 52선』(Devotional Classics)이라는 책을 펴냈다. 다양한 분야의 신앙위인들의 저서를 중심으로 새롭게 편집한 책인데 영적 독서(lectio divina)를 위한 책이라고 하겠다. 서문에 이렇게 쓰고 있다.

“오허려 그런 글들은(경건한 책: 필자) 우리의 인격 변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 글들은 감정에 호소하고, 의지를 향해 이야기하며, 지성의 도야를 추구한다. 그 글들은 근본적인 인격 형성을 요구하며 거룩한 습관을 서서히 심어준다..... 경건한 고전에 깊이 잠기

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다. 현대적인 것은 우리를 편협하게 만들지만, 경건한 고전에는 풍성한 결실이 있다. 그것들은 번덕스런 시장의 유행과는 거리가 멀고,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안목과 균형 잡힌 견해를 제공한다.” (포스터, 1999: 11 12).

지금까지는 문학에 관하여 언급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소극적이었다.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언급이 안 되었다. 문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인가. 문학을 신앙 증진에 활용해야 한다고 힘주어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라슨(D.Larson)교수는 『창조적인 사람들: 우수문학과 그 주제들에 관한 기독교 독자 가이드』(The Company of The Creative: A Christian Reader's Guide to Great Literature and Its Themes)를 펴내어 화제가 되었다.⁵⁾

“저는 복회 사역을 한 지 32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1981년부터는 트리니티신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로 재직했는데, 알고 보니 제게 배운 많은 젊은 학생들이 대학에서는 과학이나 컴퓨터, 비즈니스를 공부했었고, 교양과목을, 특히 문학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늘 마음에 걸리곤 했습니다.

문학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문화 속에서 커뮤니케이터 (의사전달자,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문학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무엇이 이 사람들의 사고를 형성하고 있는가? 그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읽었는가? 이런 걸 알아야만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무엇보다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⁶⁾

5) 『복회와 신학』 2000년 12월호. 이 기사는 신학인을 위하여 문학이 얼마나 잘 활용되어야 하는지 강조하는 내용의 기사였다.

6) 『복회와 신학』 2000년 12월호. 188-189. “트리니티신학교에서 저는 여러 해 동안 ‘문학 속의 설교자료’라는 과목을 강의했습니다. 특히 이 과목에서 저는 문학적 배경이 거의 혹은 전혀 없는 학생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학원 수준의 학교에

이종성은 그의 『신학서론』에서 신학을 연구하는 보조학문으로 여러 학문을 들고 있다. “신학의 보조학”이라는 부문에는 철학, 과학, 종교학, 사회과학, 그리고 문학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문학이 신학연구에서 갖는 위상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 이 점에서 신학과 문학은 상호간에 아무런 긍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신학과 문학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상호간에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신학과 문학은 다 같이 인간이 따라야 할 궁극적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두 학문은 다 같이 인간의 본질을 가장 예리하게 분석하여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한다. 셋째로, 신학과 문학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넷째로, 두 학문은 다 같이 인간이 안주해야 할 유토피아 세계를 추구한다. 이와 같이 신학과 문학은 공통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학의 내용이 문학의 테마가 되었으며, 또한 문학의 인간 분석이 신학적 인간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므로 신학도들은 부단히 문학자들이 제공해 주는 문학적 인간관을 참고해야 한다. (이종성, 1994: 182).

서, 문학에 대해 ‘거의’ 모르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였다는 사실입니다. 텔레비전 프로에는 정말 ‘쓰레기’가 많습니다. 설교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겠죠. 또한 현대 문학 가운데 무가치한 ‘폐물’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고전을 공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러한 책들이 언어구사력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터라면 어어는 우리의 사역 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몇 가지 생각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수 문학 접촉,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의 1장 서두에서 저는 양서 읽기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몇 가지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런 책을 통해 이슈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커뮤니케이터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혹은 무한히 값진 정보입니다. 두 번째 이점은 양서읽기가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훌륭한 커뮤니케이터라면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다 상상력 있는, 창조적인 설교와 가르침을 전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게 무엇입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독서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190)

2. 성경과 문학

문학이 신앙과 신학적 사유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야 하는 근거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문학을 연구하는 문예학적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와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어떤 면에서 성경이 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여러 학자들이 이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공통점을 끌어내었다(Ryken, 1991, 1996, T. Longman III, 2002). 성경은 1) 글로 씌여 졌다(Language), 2) 논리적 서술이 아니라 화자가 인간의 체험(Human Experience)을 이야기하고 있다(Narrative), 3)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Imagery, Imagination), 4) 실제로 문학 예술적이다(Literary Genre: Poetry, Drama, Aphorism, Short Story, Encomium 등), 5) 수사학적 언어 예술 장치(Rhetoric: Allegory, Metaphor, Parable 등)를 가지고 있으며, 성경의 곳곳에 원형적 문학구조(Archetype)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Lewis, 1997).

둘째, 성경의 문학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 이론의 당위성은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는가. 이를 풀어 말하면 성경을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왜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1) 성경이 문학적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이 점을 잘 증거하고 있다. "성경은 결국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적 감각 -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문학으로서 또 그 각각의 다른 부분을 각각 다른 종류의 문학으로서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 이 필요하다"(루이스, 1997: 8-9).

2) 성경이 문학적 미(美)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켄(L. Ryken)은 이 분야의 연구를 이렇게 결론짓는다. "성경은 혼합적인 책이다. 즉 문학적

인 부분과 비문학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즉 강해적이고 설명적인 글이 이 독특한 책안에 함께 병존한다... 나는 어떠한 기준, 즉 어떤 부분은 좀 더 문학적이고 다른 부분은 덜 문학적이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묘사하고 있다.”(Ryken, 1996: 13).

3) 연구사적 반성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 라이켄은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문법적, 역사 비평적, 방법이 필요하다. 그것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 위한 한 가지 필요한 연구방법,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무시되어온 연구방법이라는 것이다”(Ryken, 1996: 13).⁷⁾

셋째, 그렇다면 성경에 대한 문(예)학적 접근의 실례를 역사적으로 증거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온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문학적으로 가르치라는 말씀이다.

-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 (allegory)와 비유 (parable)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겔 17:2).

- 오호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르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 (parables)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겔 20:49).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 (parable)를 베풀어 이르기 를 (겔 24:3).

예수께서 비유 (in parables)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마 13:3).

-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 (many similar parables)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 (without using a parable)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 (explained everything)하시되

7) - “성경에 대한 전통적 접근 방식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른 느낌이다.” (op.cit. 43). “교회는 성경의 신학적 내용을 전달하는 일은 잘 해 왔지만 성경본문의 문학적인 면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재현하는 데는 실패했다” (Bacon).

라 (막 5:33-34).

베드로가 여짜 오되 주께서 이 비유 (parable)를 우리에게 하십시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시니이까 (눅 12:41).

넷째, 문학과 성경의 어떤 면이 성경에 대한 문학적 접근을 가능케 하는가?

1) 문학은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실례를 든다. 문학의 중심적인 내용이 인간의 체험이라면 성경도 그러하다. 성경도 인간의 현실과 체험을 중시한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도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는 질문에 논리적으로 대답하시기보다 비유로 대응하셨다.

2) 라이켄은 이렇게 말한다. “문학은 어떤 경험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기 보다는 그 경험 자체를 제공한다. 우리의 상상력 (우리 안에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능력과 이미지는 감지하는 능력)에 끊임없이 호소한다. 문학은 실제의 어떤 측면을 이미지로 그려 낸다. (Ryken, 1996: 15).

3) 문학이 독자의 참여를 요구하듯 성경도 독자의 참여를 요구한다. 성경을 문학적으로 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결과적으로 요약한다면 성경을 문예학적으로 접근하여 읽으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펼쳐지며, 성경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나아가 성경이 예술적으로 체험, 곧 육화(肉化)되어 지며, 성경을 입체적 감동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

3. 문학 속의 신학

문학과 신학의 상관성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문학과 신학은 연구 방법론적으로 보면 분명히 다른 학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감성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질문들을 남긴다. 신학은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 신은 존재하는가? 신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주와 인간의 근원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인간의 삶은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 문학도 신학이 던지는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다.

신학과 문학은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의문과 질문을 토대로 한다. 신학은 성경을 토대로 그 대답을 구하려 한다면, 문학은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찾으려 하는 점이 다르다.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그 대답을 찾는다면, 문학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체험으로부터 해답을 구하려 한다. 그러므로 문학과 신학은 전혀 동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학문이 아니다. 문학과 신학은 절대자 앞에서 처해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고뇌와 의문을 풀어가는 과정이라 여겨진다. 신학적 사유와 고뇌는 신학 분야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문학에서도 비슷한 사유와 고뇌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문학은 조직신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문학은 문학적 상상력을 통하여 과연 무엇이 진리인가를 밝히려 한다면,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은 무엇보다도 신에 대한 인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겠다. 조직신학의 과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신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하여 질문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자유와 책임으로부터 생긴다.”(Migliore, 1994:19-20). 여기서 발전한 것이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Interdisciplinary Study for Literature and Theology)라는 분야이다(추태화, 2001: 38ff).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의 한 분야로서 문학과 조직신학의 만남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토론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자. 조직신학의 모든 분야가 문학과 연관될 수는 없다. 특히 성경론, 교회론, 성령론 등과 같은 분야는 문학이 다루기 힘든 주제이기 때문에 실제 작가들도 이 부분은 충분히 고뇌하고 작품화하지 못했다. 그러나 신문, 인간론, 구원론, 기독교론, 종말론 등과 같은 분야는 작가들도 고민하고 있었던 주제였다. 어찌 보면 신학자들만큼이나 고뇌하면서 문제를 다루었다고 해야 한다.

문학이 조직신학적인 사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신문과 인간론 두 가지 예로 들어보자. 먼저 신문 부분이다. 신은 인간이 다가가고자 하는 대상이었기에 신학과 문학의 영원한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독교 영역에서만 이 아니라 일반 종교영역에서 신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찾아지고 있다. 조

직신학에 있어서 신문은 성경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문학과 다르다. 조직신학은 유신론적 입장에서 시작한다. 조직신학의 신문은 성경을 중심으로 이론을 펼쳐나간다. 따라서 신학자들에 따라 서술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의 신문은 하나님의 이름, 속성, 행위 등으로 전개된다.

조직신학처럼 신문을 연구해 나가는 분야를 문학에서 찾는다면 기독교 문학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일반문학과 기독교 문학은 그런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일반문학은 신문에 있어서 성경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지만 기독교 문학은 신을 인정하는 범주 안에 있다. 문학에서의 신문은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다. 문학에서는 무신론과 유신론적 입장에서 다룬 작품들이 많기 때문이다. 무신론적 입장이라면 본격적으로 계몽주의적 사고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물론적 공산주의, 그리고 실존주의, 나아가서는 현실적 무신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보의 작품들을 만나게 된다. 예를 들면, 카프카(Kafka), 까뮈(Camus), 사르트르(Sartre) 등 실존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실존적인 무신론, 신부재 현상(Absence of God)이 대표적이다.

또한 범신론의 경우에는 상징주의에 속한 작가들이나 릴케(Rilke)와 같은 실존주의 시인들이 문을 연 토론이다. 생철학적 무신론의 경우는 니체(Nietzsche)가 대표적인데 그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에서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고 쓴다. 이는 현대의 사신신학(死神神學)의 토대가 되었다.

“고도를 기다리며”로 현대 부조리극의 정점에 도달한 베케트(S. Beckett)는 그의 작품에서 현대인들에게 신은 어떤 존재이고 의미인지, 기독교적 서구에서 신의 도래는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있다. 그는 신의 존재를 “수염달린 신”이라고 표현하면서 인간의 의식과 문화에서 노화(老化)되어가는 시니컬한 모습으로 표현한다.

문학 속의 조직신학 두 번째 영역으로는 단연 기독교론에 관한 논의다. 이 주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전적 질문으로는 역사적

예수, 해방신학의 기독교론, 아웃사이더로서의 기독교론, 유대인의 기독교론, 불교의 기독교론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최근에 문제가 된 소설 등에서 기독교론적 질문을 관찰할 수 있으나 토론이라기보다는 복음의 왜곡으로 봐야한다.⁸⁾

문학 속의 조직신학 세 번째 영역으로는 인간론이 대두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이며, 문학에 묘사되고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주제가 곧 문학 속의 인간론(Theologische Anthropologie)이다.

인간론은 문학 작품 속에 다양하게 비쳐진다. 그리스 비극에 나타나는 인간형(Image of Man)은 신탁에 의해 삶이 결정된 운명결정론이 종종 등장한다 (dipus-Komplex). 셰익스피어에서는 인간의 상황과 감정의 갈등으로 빚어지는 비극이 나타난다(Hamlet, Othello, King Lear).

자연주의 시대에 인간은 자연과학과 문명의 결정론에 영향을 입는다. 줄라(E. Zola)의 루공 마카르 총서의 하나인 “목로주점”엔 환경의 제약 속에 있는 인간이 그려진다. 이는 테에느(Taine)의 결정론에 영향을 입은 결과이다. 카프카는 이와는 다르게 “변신”, “성(城)”과 같은 작품에서 실존적 부조리에 갇혀 있는 부자유한 인간을 그린다.

여기서 방법론적 질문이 구체화 되어야한다. 여러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 질문에 대하여 구원의 길을 제시할 것인가. 이 영역은 문학과 신학의 통합연구로 더욱 깊이를 더하게 될 것이다.

4. 설교와 문학

문학이 조직신학과 만나는 영역을 살펴보았지만 조직신학이 인간의 고뇌를

8) 기독교론에 대한 질문의 고전적인 작품은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신적 정신의 소유자로서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다. 최근 영화화까지 된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는 그러나 기독교론에 대한 진지한 토론의 관점이 아니라, 재미와 호기심으로 독자를 끌려는 네거티브적 인기전략이라 하겠다.

신학적인 뼈대로 대안을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면 문학은 그 끝없는 고뇌를 표출하고, 구상화 시키는 작업을 한다. 만약 문학이 이를 침묵해 버린다면 인간의 고뇌는 표현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 것이다. 문학의 존재가치는 이렇다고 본다.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고민하고 방향하는지 시면 시로, 소설이면 소설로 그려주고, 그것을 독자들과 호흡하고 함께 고뇌하지는 것이다. 그 고뇌의 해법은 모두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고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해답을 얻게 된다. 문학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문학이 '거짓말'과 같은 구도, 즉 허구와 상상력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진실을 얻기 위한 실존적 투쟁인 것이다. 조직신학에 지속적인 토론의 빌미를 제공하는 문학은 그러면 실천신학 분야에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설교학은 실천신학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야 중 하나이다. 가톨릭 예전에서 성찬이 예배의 중심이 된다면 설교는 종교 개혁 이후 기독교 예배 전통에서 중심에 서는 순서가 되었다. 기독교와 가톨릭이 성찬을 이해하는데 차이가 크다. 기독교에서는 성찬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중요성을 둔다. 개혁주의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를 보면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을 높이 설계한 경우를 본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 내려온다는 인식과 관계가 깊다. 여기서 문학이 설교에 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를 토론해보자.

첫째, 설교와 문학은 커뮤니케이션에서 만난다. 문학이 설교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에 관하여 몇 가지 근거를 들어보자. 설교의 본질에 대한 우선적 이해로는 "설교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다. 설교는 한 쪽에서만 외치는 일방향적 주장이 아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설교자와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백성으로서의 청중이 서로 교감해야 하는 행위가 설교에 포함된다. 쌍방향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다.

물론 말씀에는 선포적인 기능이 있다.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여든지 거부하던지 말씀은 스스로 권위를 갖고 선포된다. 그 점을 말씀의 신적 권위

라고 한다면, 또 다른 면에서 말씀은 교감을 요구한다. 인간의 내면에 들어가서 그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이해시키는 교육적 측면이다. 예배당이 강의실이 아니듯 설교는 또한 신학이나 교육학 논문이 아니다. 설교는 성령의 영감어린 감동적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체험한, 복음을 체험한 살아있는 이야기, 그것이 설교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다.

둘째, 설교는 말과 글과의 한 판 승부이다. 설교는 하나의 종합예술이다. 이는 성경 사상, 사건, 신학 사유, 현실 문제가 만나는 지점에서 그 결과를 얻어 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말과 글의 도움 없이는 재연되지 않는다.

셋째, 설교는 그 자체로 문학적 예술성을 띤다. 설교학에 관하여 교과서적인 책을 저술한 브룩스(P. Brooks)는 이렇게 말한다. “설교자는 시인이어야 한다.” 물론 여기서 시인이라는 말은 직업적으로 시를 쓰는 작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Brooks, 1997: 241-242).⁹⁾

설교가가 시인이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한 지적이다. 나아가 설교는 한 편의 드라마이다. 이 말은 설교는 드라마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드라마라는 장르는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 극적이다. 발단 → 전개 → 갈등 → 파국 → 절정 → 대단원 → 정리로 이어지는 플롯은 설교의 과정에도 적용된다.

9) “바로 여기에 시인과 설교자가 서로 맞닿는 지점이 있습니다. 모든 설교자는 한 사람의 시인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사람의 불완전함을 뒤에 인격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는 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 틀어란 바로 그 인격과 분리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며, 손상되고 깨어진 각 사람의 성품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비밀과 그 신적인 인자(人子)를 믿는 믿음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시인(詩人)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인간의 삶에 대하여 가지는 이 이상적인 시인다운 관점이 본성의 여러 기질들을 가혹하게 하고, 가난과 질병의 낙담을 이기고,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올 수 있는 감화력의 감소 등을 극복하고, 자신들로 하여금 사람들 중에서 가장 소망감이 넘치는 부류의 사람들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참 흥미 있는 일입니다.”(241-242)

넷째, 설교는 은혜의 상상력이 엮는 한 편의 예술작품이다. 위어스비(W. Wiesbe)는 설교와 상상력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현대 설교의 맹점을 극복하려 한다. 그는 과거의 설교가 너무 교리적이고, 교육적이고, 윤리적이었던 점을 반성한다(Wiersbe, 1997a).¹⁰⁾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설교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시인이 사물의 본질을 캐내기 위하여 고뇌하듯이 그렇게 애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작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시는 문학의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 그 중에서도 상상력(Imagination)이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동안 상상력은 공상, 몽상, 망상 등 허비적이고 비생산적인 기능으로 오해되었다.¹¹⁾

다섯째, 설교는 상상력에 호소해야 한다. 위어스비는 『상상이 담긴 설교』라는 저술에서 이 점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그는 설교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다. 그의 논리를 인용하자면 과거 한국 교회의 설교가 너무 교리적이고, 교훈적이었다고 반성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것이 이야기식 설교(narrative preaching)이다(Robinson, 1998). 복음이 일상생활로 파고들게 하려면 청중들의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그 이미지에 색깔과 감정을 입힐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Wiersbe, 1997a).

10) 저자는 책에서 과거 설교의 단점들을 다음과 같은 인용을 통해 지적한다. “많은 설교들이 그림으로 묘사하기보다는 개념들로 꽉 차있기에 안타까울 뿐이다.” (조지 버트릭). “성경해석가들은 설교나 가르침을 논문이나 강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설교는 이야기나 시를 쓰는 것이다.” (도로서 새이어스)

11) Wiersbe, 1997a에서 재인용.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는 성경의 가장 일상적인 방법은 설교나 신학적 진술이 아니라, 스토리이며 시이며 환상이며 편지이며 또는 문학형태의 상상력의 산물이다.” (릴랜드 라이켄). “설교는 인격을 통한 진리이다.” (필립스 브룩스). “신학자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한다... 시인은 언어를 진지하게 생각한다... 목사는 사람을 진지하게 생각한다” (유진 피터슨).

5. 기독교 교육과 문학

지금까지 한국 주일학교 교육은 학교 교육과 유사한 길을 걸어왔다. 학교교육의 위기를 이야기 하듯 교회에서의 교육도 위기를 맞은 듯 하다는 반성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IQ지향적 교육에 매진한 결과이다. 그 결과 교회 교육은 사회성, 역사성, 미래 지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학텍스트를 활용하지는 움직임이 이미 서구에서 시작되었다. 기독교 교육(Christian Education)에서 문학이 감당할 역할을 인식한 것이다.

윌호이트(J. Wilhoit)는 『현대 기독교 교육』에서 기독교계가 그동안 행해 온 “목적상실의 교육은 결과적으로 기독교 교육을 빈약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그가 기술하는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 교육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임무가 있다.”(Wilhoit, 1993: 10).¹²⁾

독일은 윌호이트가 지적한 목적 지향적으로 흐르는 편협한 기독교 교육을 보완하기 위하여 종교교육(Religionsunterricht)이라는 분야로 확대하였다. 독일의 공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학년 단위 단계별로 상세히 구분하고 있다(Adam & Lachmann(ed.), 1997, 1998). 이때 문학텍스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종교교육은 기독교 교육의 확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독일의 종교교육의 목적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건실한 종교인, 그들의 사회-역사적 책임감을 키우고 포용력 있는 사회인으로 양육”하려는 데 있다. 내용은 종교교육의 대상으로서 신앙과 실제의 삶에 집중한다. 다음은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교안의 체계와 토의되어질 수 있는 개념들이다.¹³⁾

12) 저자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기독교 교육 비판을 고백한다. “어떤 교사들은 성경의 사실들을 학생들의 머리에 단순히 쏟아 붓는 데에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것’ 정도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Wilhoit, 1991: 9)

13)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되고, 교육 대상연령층은 우리나라의 중3/고1 정도이다. 아래 저술을 기초로 하여 보완, 재구성한 것이다.

1. 생물학적, 물리적 환경 속의 신앙과 삶

주 제:

- 1) 아름다운 새 세상: 유토피아와 발전, 생명계의 고통과 파괴, 성경적 인도와 약속, 자연친화적 모델, 사회 문제의 대안으로서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 2) 인간 개량의 한계: 생물학적 개량의 결과, 과학 지식의 남용과 위험, 유전공학의 윤리적 문제, 유전공학-의학적 변질에 대한 목적과 한계,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과 자연 과학, 철학적 인간 이해.
- 3) 스포츠와 운동: 개념의 상이성, 사회적 기능과 역기능, 유희/아름다움/성취감, 실력과 한계의 수궁, 몸의 해방, 몸에 대한 권리와 책임

2. 현대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주 제:

- 1) 노동과 삶: 직장을 통한 소망과 불안, 노동을 통한 억압과 위협감, 노동의 의미, 직장에서 차별, 차별에 대한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도움.
- 2) 벌, 용서, 복수: 벌의 의미,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론, 전과자의 개인적 전기, 성경적 안목, 형 집행의 결과, 사회 복귀와 적응.
- 3) 교회의 갈등: 교회에 대한 기대와 비판, 그리스도의 제자공동체로서의 교회, 무교회주의의 가능성과 위험, 민족교회의 가능성과 위험, 교회의 임무,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실천신학의 확대.
- 4) 종족주의: 종족주의의 예, 기독교와 종족주의가 화해할 수 없는 이유, 종

G. Adam, R. Lachmann(ed.)(1994, 2.Aufl.), Gemeindepädagogisches Kompendium,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_____(ed.)(1997, 5.Aufl.), Religionspädagogisches Kompendium, Kompendium,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_____(ed.), Methodisches Kompendium für den Religionsunterricht,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1998(3.Aufl.) G.Adam, F.Schweitzer(ed.)(1996), Ethisch erziehen in der Schule,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족주의 퇴치방안, 소수민족에 대한 선입관, 선민사상의 긍정, 부정적 측면.

5) 주인이나 종이냐: 제3세계의 사회적 갈등, 문화적 황폐화, 식민주의 시대와 그 결과, 선교의 역할, 과거와 현재, 여러 가지 발전 모델, 제3세계 문제를 통해 본 삶.

6) 폭력을 포기: 기독교적 의무로서 폭력포기와 고통, 농민전쟁 이해, 국가적 폭력의 당위성과 한계, 살상무기 인정문제, 정당방위로서의 전쟁 가능성.

3. 개인적 정체성 차원에서

주 제:

1) 삶의 의미: 인정과 성공, 소망과 기대감, 실패, 그리고 생의 의미찾기, 기독교 신앙으로 도와주기, 치유.

2) 사망, 죽음, 부활: 사망과 죽음에 대한 일상적 반응, 임종을 앞둔 자에 대한 행동, 사망 소식과 부활의 소망, 죽음과 부활: 기독교인의 삶, 슬픔을 당한 자에 대한 행동.

3)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생명 보호, 청부살인, 생명경시, 대안들.

4) 자유와 공동체를 향한 교육: 교육의 영향, 종교적, 세계관적 요소, 전통과 권위, 실험과 비판, 성숙을 위한 교육.

5) 교제, 사랑, 결혼: 사랑받음과 사랑함, 신의 뜻에 의한 남녀의 결합, 성 의식과 사랑, 결합과 사랑, 청소년의 이성적 사귄, 이혼과 가정 해체, 회복.

4. 현대 종교성과 교회 현실 차원에서

주 제:

1) 오늘날의 구원: 보다 나은 세계의 동경, 유토피아적 사상,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주의, 하나님 나라의 정치적 변용, 개인 회심과 세계 변혁.

2) 비교회적 신앙공동체(이단): 이단 안에서의 삶, 이단의 특징, 이단의 요구와 현실, 기성 교회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단, 이단의 분포, 이단의 비사회성 등.

3) 젊은이들의 신앙: 젊은이들의 신앙적 삶, 그 특징, 요구와 현실, 기성 교회에 대한 도전으로서 젊은이들의 신앙, 자유와 폐쇄성 사이에 선 젊은이.

4) 절기와 축제: 성공한 절기, 실패한 절기, 공동의 기억, 인간적 기본욕구 충족, 안식일, 축제로 초대하기, 예수가 축제를 통해 의미하려는 것, 축제 준비, 과정, 결과.

5) 아시아 종교성: 인도 종교에 대한 매력과 소외감, 힌두교적 경건성, 힌두교의 생의미, 인도 종교와 기독교 신앙, 부다의 일생과 불교 교리, 불교와 기독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기독교 교육은 주로 기독교 계통의 학교와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기독교 학교의 경우, 실제로는 예배와 성경공부 위주로 짜여져 있고, 입시 위주의 교과편성의 영향으로 더 이상의 기독교 교육을 하기에 힘든 상황이어서 문학을 기독교 교육에 활용한다는 것은 특별한 소명을 갖은

표 1: 종교교육과정 속의 토론 주제와 문학텍스트¹⁴⁾

분 야	토론 주제	토론을 위한 문학텍스트/영화 등	성경적 세계관, 신앙, 윤리 등과 비교
I. 인간과 자연: 생명, 자연, 환경, 인간	생명의 아름다움	서정시, 자연시	창조신학, 창조론
	과학 기술, 문명	SF 소설, 동물농장	신학과 과학, 기술론
	환경 오염, 고통	환정시, 생태시	문화명령, 죄의 결과
	자유의 미래	1984년, 멋진 신세계	미래학, 문명의 진보
인간의 역할	노인과 바다, 변신	하나님의 형상, 인간론	

11) 다음 표 안의 문학텍스트는 한국 실정에서 접근하기 용이한 작품을 필자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선정한 것이며, 영화 역시 같은 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선택적이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주제에 대한 전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작품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분 야	토론 주제	토론을 위한 문학텍스트/영화 등	성경적 세계관, 신학, 윤리 등과 비교
II. 인간과 사회: 정치, 역사, 사회	기초생활, 의식주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인간의 상황
	노동, 직장,	참여시, 노동자시, 삼포가는 길, 노동의 새벽	일과 노동
	갈등, 소외, 폭력	당신들의 천국, 실직자 읍의 묵시록	관계, 권력의 윤리
	범죄, 죄책감, 양 심	주홍글씨, 죄와 벌	개인, 집단적 범죄
	해 법, 화 해,	주홍글씨, 죄와 벌	회복, 치유
III. 인간의 삶: 탄생에서 죽음까지	소망, 희망	어린 왕자, 성채	구원의 의미
	성공과 실패	아버지, 좀머씨 이야기	절망과 구원
	사랑과 미움, 장 애,	가시고기, 오체불만족,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	감정, 심리
	늙음, 죽음, 안락 사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종말론
	죽음 이후, 내세	신 곡 (영화) 천국보다 아 름다운	내세론
IV. 현대 종교 기독교의 정체성, 현대 종교현상	신종종교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마니	정신 공황, 신드롬
	문화의 종교적 대 치	상실의 시대	대리만족
	중독성 습관, 마 약 등	(영화) 트래픽,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중독과 윤리,
	타종교	만다라 등 종교분학	타종교와 기독교
	다양한 구원관	인도로 간 예수	기독교의 구원론

교사가 아니면 펼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독교 학교에서의 문학 활용

은 독일의 종교교육과 비교하자면 특별한 교안이 없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주일학교 교육은 어떠한가. 여기에서도 문학은 그 활용도에 있어서 아주 미약한 상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문학을 안 가르쳐서 기독교 교육, 주일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부연하자면 문학적 방법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이나 주일학교 교육이 교리 교육, 주입식 교육으로 흘렀고, 그 결과 학생들이 주일학교 교육을 딱딱하고 지루한 교실처럼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이 학생들이 교회학교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따라서 문학적 텍스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가오는 사회적 주제에 대한 다원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며 그 대안을 성숙하게 발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¹⁵⁾

III. 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감성에서도,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변화는 끊이지 않는다. 더구나 영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논리와 개념에 치우친 과거의 방법만으로는 기독교계가 사회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것이 진단이다.

기독교계는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문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신앙의 각 분야에 적용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학은 가장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이자 인간 그 자체를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문학 속에 내재해 있는 다양한 기능과 내용을 기독교 문화와 신앙 분야에 활용한다면 새로운 축으로 이동하고 있는 사회의 흐름에 복음을 실어 전할 수 있는 방법을

15) 문학에서 다음 주제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그 실례를 중심으로 교육 안을 구성해 본다. 신, 인간, 인간의 위상(하늘과 땅 사이, 선과 악 사이, 경건과 타락 사이), 국가, 사회, 사랑, 죄, 창조, 환경, 사회적 갈등 등등

개발하게 되리라 본다.

참고문헌

- 박원호 (1996), 『신앙의 발달과 기독교 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오인탁 외 (2001), 『현대 교회와 교육』,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옥한흠 외 (2004), 『IQ 목회에서 EQ목회로의 전환』, 서울: 기독교신문사.
- 이성희 (1996), 『미래 사회, 미래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_____ (2002),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
- 이종성 (1994, 재판), 『신학서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 정성구 (2000), 『실천신학개론』, 서울: 총신대출판부.
- 정인교 (2000), 『설교살리기』, 서울: 생명의 말씀사.
- 정상복 (2001), 『설교학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 추태화 (2000), 『21세기 인문학의 전망』,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 _____ (2004),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서울: 코람테오.
- Adam, G. & Lachmann, R(ed.) (1994, 2.Aufl.), *Gemeindep dagogisches Kompendium*, G 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_____ (ed.) (1997, 5.Aufl.), *Religionsp dagogisches Kompendium*, G 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_____ (ed.), (3.Aufl.) *Methodisches Kompendium f r den Religionsunterricht*, Vandenhoeck & Ruprecht, G ttingen, 1998.
- Adam, G. & Schweitzer, F(ed.)(1996), *Ethisch erziehen in der Schule*, G 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Berg, F. V. (1991), 『아브라함 카이퍼』, 김기찬 역, 서울: 나비.
- Berjajev, N. (1991), 『도스토예프스키의 세계관』, 이정식 역, 서울: 현대사상사.
- Berkhof, L. (1998), 『기독교 신학개론』, 신윤복 역, 서울: 성광문화사.
- Bohren, R. (1992), 『설교학 원론』,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Brooks, P. (1997), 『설교론』, 서문강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Foitzik, K. & Harz, F. (1995), *Religionsunterricht vorbereiten*, München: Claudius.
- Foster, R. (ed) (1999), 『신앙고전 52선』, 송준인 역, 서울: 두란노.
- Hunter III, G. (1999), 『불신자들에게 열린 교회가 성장한다』, 홍용표 역, 서울: 서로 사랑.
- Lewis, C. S. (2003), 『고통의 문제』, 이종태 역, 서울: 홍성사.
- _____ (1997), 『시편 사색』, 김정우 역, 서울: 종신대출판부.
- Longman III, T. (2002), 『문화적 성경해석』, 유은식 역, 서울: 솔로몬.
- Gallergher, S & Lundin, R. (1997), 『신앙의 눈으로 본 문화』, 김인수 역, 서울: IVP.
- Migliore, D. (1994), 『조직신학 입문』, 서울: 나단.
- Moeller, Charles (1985), *Literature and Religion*, 이효상 역, 『문학과 종교』, 서울: 이문출판사.
- Robinson, W. (1998), 『이야기식 설교를 향한 여행』, 이연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Rozell, R. (1985), 『교회학교 교수요령』, 양은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 Ryken, L. (1991), 『기독교와 문학, 세계를 바라보는 창』, 권연경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_____ (1996), 『문학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광철호 역, 서울: 은성.
- Stuart, D. (1995), 『성경 해석 방법론』,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Veith, Jr, G. E. (1994), 『크리스도인에게 문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김희선 역, 서울: 나침반.
- Wilhoit, J. (1993), 『현대 기독교 교육』, 신서균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Wykoff, D. (1992), 『기독교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김국환 역, 서울: 성광문화사.
- Kaiser, K. 외 (1996), 『성경해석학 개론』, 강창현 역, 서울: 은성.
- Wiersbe, W. (1997a), 『상상이 담긴 설교』, 이장우 역, 서울: 요단출판사.
- _____ (1997b), 『이미지에 담긴 설교』, 이장우 역, 서울: 요단출판사.

Abstract

Eine Studie zur Anwendung der Literatur im Zeitalter der Kultur

Tea Wha Chu*

Wo wir leben, nennt man das postmoderne Zeitalter, in dem sich komplexe Kulturerscheinungen zusammenschließen. Es ist darum unmöglich zu existieren, ohne Kommunikationsverfahren zu ignorieren. Es trifft auch gerade die christliche Welt, sogar die kirchliche Gemeinde. Unsere Gesellschaft befindet sich nicht in einer Einbahnstraße der Kommunikation, sondern der interaktiven. Deswegen werden als Vermittlungsmittel Vernunft, Emotion und Spiritualität benötigt.

Mitten dieser Zeitbedingungen erscheint Literatur als neues Medium. Wenn man das Wesen der Literatur gut versteht, dann kann man reichlich die Nutzlichkeit der Literatur für Kommunikation verwenden. Es gilt für die Kirche und Seelsorgetätigkeit und die Gläubigen. Als Merkmale für heutige Zeit hat man EQ, LQ und MQ. Literatur behält diese Elemente in sich. Daher wird bedeutend, Literatur für die alltägliche Glaubenswelt gut

* Professor, Anyang University

zu nutzen,

Schl Belwort: Die Begegnung im Zeitalter der Kultur:

Glaube und Literatur, Bibel und Literatur,

Literatur und Theologie, Predigt anhand der

Literatur, Christliche Erziehung und Literatur